

승대극회 제44회 봄 정기공연

생

일

파

E

(The Birthday Party)



우리의 스타 영심이가,  
파시통통에 흔들릴줄이야...

졸랑졸랑 지겁게 쫓아다니는 왕경태 —  
난 오늘 경태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동안의 장미꽃, 러브레터, 곱인형등의 선물세례에도  
모두 싫은척 했는데 —  
오늘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태가 나를 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파시통통!  
이 영심이가 파시통통 좋아하는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보면, 경태 고것도 쓸만한 구석이 있다니까 —

파시통통

모·시·는·클



극회장 남재우

여기

날고싶어 파닥이는 몇마리 병아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봐달라고  
존재를 알리고 싶지만 날 수는 없군요.  
미숙한 날개짓으로 땅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좋은 연극을 하고 싶었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하려 하고 싶었다는  
구차한 변명밖에 할말이 없군요.  
이 연극이 오르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백/마/당/구/장



• 충실파운  
최신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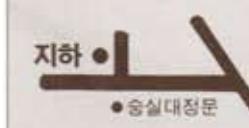
## 자매분식

TEL. 816-9835



• 지하  
• 충실파운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 충실파운  
옛촌  
TEL. 813-6235

cafe LAURA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후문  
• 충실파운  
TEL. 815-3784



연출 **권승혜**(불문88)

당신과 나와의 끊임없이 나눠온  
무의미한 대화의 반복이 실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내 세계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나와 당신의 거리는  
여전히 막연하기만 한데...

他人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나의 행위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금  
나의 과거와 현재가 있는 여기는 어디지?  
그리고 내 앞의 당신들은 누구인가?  
無言의 침묵으로만 마주하는 우리들이기에  
더 이상의 정신적 영역은 침투할 수 없었다.  
내가 요구하는 Detail과  
당신이 원하는 Free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합니까.

존재를 찾고 싶어.  
흩어지는 언어 속에서 잊혀지기는 싫어.

당신의 기대와 어긋나 버린 저의 몸짓이  
이제 서서히 당신의 품 안에서 날개를  
접고자 합니다.  
나의 어머니.  
당신과의 융화는 저의 영원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작품을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으로서 뜨겁게 보냅니다.



골드버그  
**이기택**(사사90)



루루  
**이선희**(회계90)



맥캔  
**현승옥**(불문90)



매그  
**판숙경**(사사89)



스탠리  
**장수선**(전산91)



피이티  
**양현준**(법학90)

## ■ 작가에 대하여

Harold Pinter(1930~ ) 런던 태생의 배우, 극작가로서 1960년대 이후 특수한 표현법으로 영국 연극을 대표하는 존재로 꼽히고 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매스 미디어를 활용, 많은 T·V드라마를 썼다. 포루타칼, 유태계 출신인 Pinter는 학교 교육이란 고작 중학 정도에 불과 했으나 배우를 지망. 잠시 The Royal Academy of Dramatic Art에 몸을 담았고 아일랜드를 순회공연 하는 극단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957년 첫 작품 「The Room」을 발표하고 이어 불과 일주일 밖에 공연을 못한 「생일파티(1958)」를 발표하여 찬사와 비난을 한꺼번에 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후 그는 「가벼운 통증(1961)」「관리인(1960)」「담 웨이터(1958. Dumb Waiter)」 콜렉션 「(The collection 1962)」 그리고 「귀향(The Homecoming 1965)」 같은 독특한 작품을 계속 발표. 오늘날 부조리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되었다.

Pinter는 대체로 Samuel Beckett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지 나름대로의 「음산한 폭력을 가미한 不條理 연극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모호하다.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계기나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작가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의 작품에는 그의 작가적 전기에 나타난 특징들이 전부 용해되어 있다. 우선은 그가 유태인 이었다는 것.

시인, 배우에서 출발 극작가로서의 연관이 있는 것도 거기에 서다.

Pinter는 스스로를 부조리 작가의 범주에 넣은 것을 꺼려하고 자신을 전통극작가라고 칭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그가 Shakespeare 극의 배우로서 극생활을 시작했던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라도 서로 연관을 이루고 있거나 일관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따라서 Pinter의 작품에서 폐쇄된 공간을 의미하는 room 房이나 거기에 침입해 들어오는 침입자의 개념이 포기된 적은 거의 없다.

Pinter 극의 주제는 목적이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의 불안하고 소외된 삶을 취급하여 거기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상황, 인물들이 다분히 사실적이면서도 극속에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점차로 위협적 기운을 띠는 것이다. 설명이 불가능하고 애매모호한 행동이 있으며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표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그 속을 드려다 보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어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의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둘러쌓여 있는 삶의 극한 가장자리에 처해 있는 인물을 묘사하려는 것이다.

이번 작품 Pinter의 걸작인 「生日 파티」는 Pinter 극의 수단이자 주제인 위협이라는 개념이 더욱 구체화 되는데 알 수 없는 공모와 초현실적 분위기를 자아내어 그 원인을 외부적 위협으로 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럼으로써 등장인물 개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는데 「위협」은 이것마저 방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단 공포에 휩쓸린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은 위협을 당하게 될까봐 「의사소통」을 단절되게 만든다. 일상어가 지니는 무의미한 반복.

즉 자신의 의사나 어떤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고 한 인물이 자신의 본성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의 주의를 땀곳으로 돌리려고 거부 의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극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의 수단이 되는 침묵을 적절히 사용하여 대사를 하지 않는 준비상태로 확실히 두어 인물의 주저하는 심리나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인물의 음산한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극의 또 하나 사용법은 「입증」이라는 개념이 모호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과거를 입증할 도리가 없다.

Pinter에 의하면 진실(reality)이란 말은 확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말로 표현한다면 확고하고 안정되고 명백하게 느껴지지만, 사람이나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바뀔 때마다 참고점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무대위의

인물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행위나 미래의 일부에 관해 설득력 있는 논의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자신의 동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분석도 내놓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인물과 다를바 없는 합당한 존재이며 관심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실은 경험이 절실했을 수록 그 표현은 덜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진실을 그저 형식화 할 수 밖에 없는 「입증」으로 의 인물들은 의사소통의 실패로 차가운 고립감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 ■ 작품분석

「생일파티」에서도 역시 정체 불명의 「위협」이 외부에서 밀어 닥친다. 바닷가의 어느 초라한 하숙집에서 비교적 무사히 지내고 있는 30代의 무기력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하숙인 Stanley는 느닷없이 수상하고 위협적인 두 방문객(분명히 그를 잡으러 온) Goldburg와 Mccann의 침입을 맞게 된다.

그전에 이 두 방문객에 대해 얘기하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인 Meg와 Stanley의 대화는 방문객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Stanley로 하여금 잠재된 극의 긴장과 공포를 노출시켜 외부의 압력을 느끼면서 자신의 확인될 수 없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갈등, 부담감을 설명한다. LuLu의 등장은 극의 완화를 요구하려는 작가의 의도이지만 위기 의식을 어느 정도 밀바탕에 깔아 놓아 언제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뜨릴 수 있게 한다.

외부와의 접촉을 피한채 스스로 불안의식에 사로잡혀서 LuLu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가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고는 싶지만 그가 갈곳이 없다는 것은 그 두 침

입자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아 있음을 예고하고 그의 대사의 부조리성으로 그의 나약한 모습과 다가올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극의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드디어 외부의 위협을 의미하는 Goldburg와 Mccann은 어떤 사회 조직으로부터 고용된 살인 청부업자처럼 더 나아가서는 현대 문명의 전체주의체제를 표현하기도 한다.

Goldburg의 음성은 지극히도 응변성을 띠고 사무적이며 자신감에 차있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과거를 이야기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잘못 알도록 혼동을 준다.

그리고 진분한 문제들을 나열하여 자기 만족적 도취를 표현하여 달아 빠진 그의 음란한 모습을 드러낸다.

Stanley의 공포에 대한 몸부림은 북을 치는 가운데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더 나아가 Goldburg와 Mccann의 정신적, 물리적인 잔인한 폭력을 암시한다.

2막에서 Mccann과의 형식적인 대화속에서도 무언가

## 91학번 신입생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만 계속 무위로 끝나면서 Pinter극의 주제인 의사소통의 실패로 인한 개인의 소외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Goldburg와 Mccann은 Stanley로 하여그 자기를 마음대로 세뇌적으로 공격적인 모욕과 당혹스런 질문들로 자기방어력을 약화시켜 명확한 판단력과 정신 상태를 흐리게 만든다.

드디어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연속적인 질문이 폭력의 수단으로 답변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기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드디어 저항력을 잃은 Stanley를 위한 파티가 시작되고 긴장되는 장님놀이에서 출래가 된 Stanley는 그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간파하지 못한 Meg의 우둔한 처사에 대한 분노로 Meg를 목 조르려 하고 감정의 격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사라져 LuLu를 강간하려 한다.

Stanley는 이제 동물적인 상태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상실하여 파멸 되는 것이다.

3막에 와서는 서서히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Mccann과 Goldburg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있어 심리적 갈등이라는 난관에 처하고 그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획일성을 떤 인간형을 보여 준다.

Goldburg는 자신이 세상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회를 믿는다고 이야기 한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곧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킨다는 생각에서 애써 강조하는데 그것 또한 반복을 통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진 심리적 부담감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간밤의 광란을 이유로 자기들이 돌아버린 Stanley를 잘돌봐 주겠다고 약속하여 Stanley를 검은 차에 태워 가려 한다.

방어 능력이 상실되고 폭력으로 인한 갈등의 붕괴는 침입자가 원하는 순종적이고 무저항의 안일한 Stanley로 변하게 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칠

고 잔인한 힘에 의해 파괴되고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다.

동물들이라는 단어 자체에 깔리는 동물들의 생존 본능 수법까지 동원하여 인간성을 파괴하여 그 잔인성을 Goldburg와 Mccann 자신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디어 Stanley는 말쑥하게 차려 입고 새 사람이 되어 분명치도 않은 말을 지껄이며 순순히 그들을 따라간다.

Meg의 남편 Petey가 막으려 하나 같이 데려가겠다는 위협에 용기를 잃고 무너지고 만다.

그들의 거부에 대항할 용기를 상실하고 Stanley로 하여금 두 방문객의 행동을 거부하도록 하여진 시도는 Stanley가 그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헛되게 끝난다.

Stanley가 끌려간 후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이 받은 인상을 숨기고 그것을 Petey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담고 다시 Meg와의 대화에서 사소한 일상사건을 이야기 할 뿐이다.

그의 무능함과 거기서 오는 죄의식을 잠정적으로 숨기며 Meg 또한 어쩌면 생일파티에서 일어났던 그 무서운 기억을 미루어 보면 Stanley가 끌려간 사실을 예견하지만 모든 것이 과거와 같이 여전해야 한다는 환상에 매달리려는 그녀의 안타까운 몸부림 만이 있을 뿐이다.

정말 Stanley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물든 그의 생애의 어느 시기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확실한가 보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죄의 죄의식이며 타당한 처벌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잘못 또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서운 왜곡된 진실이 주는 「문명이 인간에게 부여한」 알 수 없는 죄의식인 것이다.

지난 몇개월의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혹 실망하시지는 않았는지요.

대부분은 많이 실망하실겁니다.

당신들은 젊습니다.

젊음을 너무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젊음은 한번쯤 불타 보아야 합니다.

여기 당신의 젊음을 펼칠 무대가 있습니다.

결코 잘난사람

멋진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번쯤 미쳐버리고 싶은 사람들은 오십시오.

혹 저희 교회에 대한 낭설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희를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들이 두렵다면 다른 무엇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지 마십시오.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당신을 사랑이 가득한 우리교회의 가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고등학교다닐때  
나는 무척 연극이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수 없었다. 대학 때문에  
대학에 와서 연극을 하려 했다.  
하지만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내 자신의 간사함 때문에

어↗ 그런데 내가 지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일이 아닌가?

젊은이의식사처

## 그린하우스

종합분식 · 신속배달  
TEL. 816-5196

승실人의

## 상도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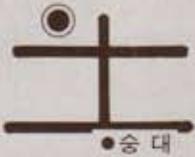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연회석완비 한식 전문

## 두/메/골

승시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TEL. 813-3655

한식전문, 연회석 완비

## 상 도 회 관

승실대 상업은행 옆

TEL. 813-0503

고등학교다닐때

나는 무척 연극이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수 없었다. 대학 때문에

대학에 와서 연극을 하려 했다.

하지만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내 자신의 간사함 때문에

어↗ 그런데 내가 지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일이 아닌가?



무대감독  
**이영민**(물리84)



무대미술  
**이준석**(기계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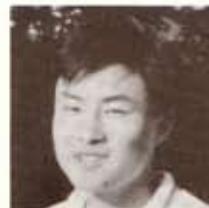
의상  
**홍은영**(법학89)



홍보  
**이충희**(전기91)



진행  
**홍석환**(기계91)



조명  
**한석윤**(기계91)



음향  
**이경희**(산공89)



기획보  
**정현용**(법학87)



소풀  
**이종윤**(법학89)



분장  
**남재현**(철학88)



무대장치  
**안상준**(기계85)

축

## 공연

참된 연극인이 되시길 바라며,

대학연극의 기수로 활동하는 숭대극회 제44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리의 단결의 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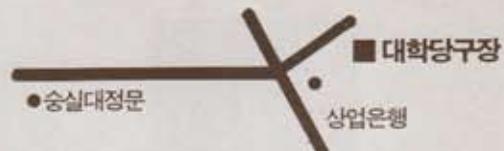
—민족 숭실 동아리 연합회—

경양식 &amp; 호프전문점



☞ 812-5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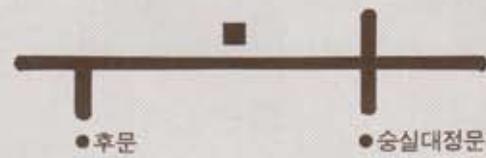
## 대학당구장 (구이화당구장)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당구의 묘미를 즐기시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멋진시간을 약속드리는

## 호프 브로이



어딘가 당신만의 시간을 원할때

## NeO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 연래춘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습니다.



졸려요 자고 싶어요.  
당신들 아무도 내잠을 방해해선 안돼요.  
영원한 잠을 잘테니까.

—메 그—

내가 하는 일이 무언가만 알게되면 괜찮아지죠.  
실재의 나는 과연 그럴까?

—멕 캔—

음 이제 난 나가 봐야 겠는걸.  
난 어디론가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피이터—

일단 모든게 변하고 나면  
그때서야 전에 일을 정말 감상하게 되죠

—스탠리—

에이 쌩

—골드버그—

모르겠어요. 누가 이자리에 제대신 멋진말을 채워 주세요.

—풀 루—

# 공연연보



## 품질을 으뜸으로 여기는 상표들이 한결같이 선택하는 일신방직의 ★삼성표 순면사

이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고유한 디자인 감각과 함께  
순면의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뛰어난 품질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품의 디자인과 그 품질을 생명으로 여겨  
최고의 품질을 위해 반드시 최고의 소재를 찾습니다.

더없이 까다로운 선택안으로 이들 상표가  
한결같이 선택한 일신방직의 '삼성표' 순면사는  
그래서 품질의 뛰어남을 자신합니다.

**일신방직주식회사**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연출
1	1921년 6·13	영국 회사인 '플레이트'에 대한 글로 "대비국 노래의 꽃"	
2	1923년 7·7, 21	한국 '우리의 행진' "플레이트" "모든 꽃" "기제인간" 출연행진곡 주관	
3	1923년 7·28, 29	"소련연극" 출연행진곡 주관	
4	1965년 11·1	"페스토 풀마요티" 출연곡을 비롯한	이번 전진호
5	1968년 10·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6	1969년 10·30	"희곡들" 이오네스모작	이태주
7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8	1970년 5·15	"학자와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9	1970년 10·28, 29	"驕貴의 韓求" 사무엘·辈eker作	김양기
10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님과 상회" 은조명作 "담배 배독에 대해서" 안준·辈eker作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터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辈eker作	정홍화 주정서 한영재 혹근재 차현재
11	1971년 11·4, 5, 11	"처녀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작	차현재
12	1972년 5·25, 26, 27	"생일파티" H. 펠터作	한영재
13	1973년 5·21, 22, 23	"미시시피 밤의 결혼" F. 위센마트作	고봉인
14	1973년 10·25, 26, 27	"당" H. 펠터作 "기도"(소극장) F. 아리엘作	김득남 차현재
15	1974년 5·25, 28, 30	"정의의 사람들"(전5막) A. 아파작	정홍화
16	1975년 6·9, 10, 12, 13	"페터터의 신작"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7	1975년 10·29, 30, 31	"비디안과 방화범" Max Frisch作	김기영 안홍순
18	1976년 6·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탈리작	김기영 김득남
19	1976년 10·25, 26, 27, 28	"생" 장·클로드·반·이탈리작	김영덕
20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辈eker作	예정식 김영덕
21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辈eker作	정홍화 김영덕
22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정홍화 김영덕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연출
23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정홍화 김영덕
24	1979년 10·24	"EQUUS" (대학연극 제1장) 피터·辈eker作	민승기 김영덕
25	1979년 6·18, 19	"한강 2979" 김병덕作	정재호 미국
26	1979년 9·29, 10·2	"초·춘" 오대석作	이성일 황성준
27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플라크작	임세범 박양진
28	1981년 6·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센마트作	이홍규 황성준
29	1981년 11·12, 13, 14	"달빛이 꽃" 김병용作	전석근 황성준
30	1982년 9·12, 13	"아리굴라" A. 카뮈作	유대웅 지숙
31	1982년 10·7, 8	"페도우 박스" M. 크리스토fer作	전희식 황성준
32	1983년 6·20, 21	"마시시피 밤의 결혼" F. 위센마트作	전희식 김영덕
33	1983년 10·7, 8	"트레버" John Bowen作	이현우 오정영
34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이홍규 임세범
35	1984년 10·11, 12, 13	"변천소" John Stolt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36	1985년 5·9, 10, 11	"빈빈꽃" Maxim Gorky	김상현 이용섭
37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만나 바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38	1986년 6·4, 5, 6	"에우우스""EQUUS" 피터·辈eker作	허성무 하승민
39	1986년 9·11, 12, 13	"로켓소" F. 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송기범
40	1987년 6·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진행진 이준석
41	1987년 9·10, 11, 12	"오 빼" A. Camus	오정열 박경근
42	1988년 6·2, 3, 4	"한내야? 물내야?" Dario Fo作	전태수 송근호
43	1988년 10·6, 7, 8	"안내야? 물내야?" Dario Fo作	전태수 송근호
44	1989년 5·25, 26, 27	"농 내" 은조명作	전승범 안선우
45	1989년 10·10, 11, 12	"대성단의 신인" T. S. Eliot作	오전율 이연
46	1990년 5·21, 22, 23	"안되고네" 장·아우리작	신태수 이준석
47	1990년 8·30, 9·1, 2	"한국인대기" 한석진작	전승범 이준석

##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의 꽃" W. Arning作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술 빙" 은대성作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생" 이강백作	한 청 정재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er作	이영환 오정환
6	1982년 3·24, 25	"임금님 계는 달나귀 꽃" 김용학作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16, 17	"풀학교에서" 피터·辈eker作	전희식 홍미석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연출
8	1984년 3·8, 9	"세인의 소공간" N. Holland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 St. V. Miller作	이영환 하승민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펜탁·일센作	이길영 김정은 위성선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온" J. P. 샤르트르作	예운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기" 이현화作	전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독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mus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한자" Grottkau, Steinbeck	이영민 이상주 이혜숙 배모자
15	1991년 3·7, 8, 9	"줄스파이퍼" 줄스파이퍼作	정현웅 이범준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문 전시에 진료는 의사에게 마지막 균질하여 밝은 사회 아록하자.

여성과  
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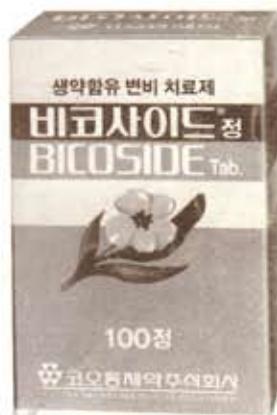
“그제도, 어제도  
아-오늘도 또 실패!”

# 아침이 가쁜해요! 하루가 상쾌해요!



**비코사이드는 생약과 양약이 복합처방된 이상적인 변비약입니다.**

- 생약성분의 센나는 대장침막을 자극하여 부드러운 대장운동을 통해 배변을 한결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 양약성분의 비사코딜은 대장의 수분흡수를 막아주고 점액분비를 촉진시켜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합니다.
  - 취침시 1~2정 복용으로 개운하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표준소매가격 :  
10,000원/100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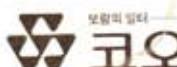
준소매가격:

1003

한국오픈채용포털마켓

### 자기전 화번 개운한 하루

**비코사이드® 정**



 맞춤의 일다 코오롱제약(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462-12 (코모统筹推进) 4층

卷之三